

비대면 시대에 IoT를 활용한 청년 구직활동수당 지원사업 접근 방안 모색

이상호¹, 조광문^{2*}

¹목포대학교 스마트비즈니스학과 교수, ²목포대학교 전자상거래학과 교수

Seeking an Approach to Youth Job Search Allowance Support Project using IoT in the Untact Era

Sangho Lee¹, Kwangmoon Cho^{2*}

¹Professor, Dept. of Smart Business, Mokpo National University

²Professor, Dept. of Electronic Commerce, Mokpo National University

요약 본 논문은 전라남도 청년 구직활동수당 지원사업의 참여자를 대상으로 취업을 경험한 대상자의 취업 횟수와 취업을 경험하지 못한 대상자의 실업 기간에 따른 지원 효과에 대한 차이를 검증하고자 하는 것이다. 또한 수당 사용 방법, 도움 분야, 하루 평균 투자시간, 월평균 지출 비용, 구직활동의 어려운 점, 요구되는 프로그램의 청년 구직활동의 차이를 파악하여 사물인터넷을 활용한 제도의 발전 방안을 모색하고자 하였다. 본 연구는 2020년 2월 19일부터 3월 9일까지 전라남도 청년 구직활동수당 지원사업에 참여한 대상자 602명이 설문조사에 참여하였다. 수집된 자료는 SPSS 21.0 프로그램을 활용하여 자료를 처리하였다.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취업 횟수에 따른 만족도는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취업 횟수에 따른 효과성은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실업기간에 따른 만족도는 차이는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넷째, 실업기간에 따른 효과성은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청년 구직활동수당 지원사업의 효과를 제고하기 위해서는 비대면 시대에 사물인터넷 환경을 활용하여 다양한 정보를 공유할 수 있는 에듀테크 산업과 기술이 함께 개선되어야 할 것이다.

주제어 : 비대면 시대, 청년 구직활동수당, 만족도, 효과성, 취업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paper is to verify the differences of the effect of the support between the number of employment of those who have experienced employment and the unemployment period of those who have not experienced employment for the participants of the Jeollanam-do Youth Job Search Allowance Support Project. In addition, this study attempted to find out the ways to develop the system using the Internet of Things by figure out how to use the allowance, the field of help, the average investment time per day, the average monthly expenditure, the difficulties of job search activities, and the differences in the youth job search activities for the required programs. In this study, 602 people who participated in the Jeollanam-do Youth Job Search Allowance Support Project from February 19 to March 9, 2020 are surveyed. The collected data was processed using the SPSS 21.0 program. The research results are as follows. First, there was a difference in satisfaction according to the number of jobs employed. Second, there was a difference in the effectiveness according to the number of employment. Third, there was a difference in satisfaction according to the period of unemployment. Fourth, there was a difference in effectiveness according to the period of unemployment. In order to enhance the effectiveness of the youth job search allowance support project, the Edutech industry and technology that can share various information using the Internet of Things environment in the untact era must be improved together.

Key Words : Untact Era, Youth Job Search Allowance, Satisfaction, Effectiveness, Employment

*교신저자 : 조광문(ckmoon@mokpo.ac.kr)

접수일 2020년 7월 13일 수정일 2020년 8월 24일 심사완료일 2020년 9월 14일

1. 서론

2019년 12월에 찾아온 코로나 19(COVID-19)는 우리 사회에 새로운 생존의 시대를 맞이해야 하는 서막을 알리며 예전과 다른 보편적 생활의 변화를 요구하게 되었다. 새로운 생존의 시대는 비대면 시대로의 전환을 어쩔 수 없이 받아들이 수밖에 없게 하면서 경험하지 못한 새로운 경기불황이 지속되기 시작하였다.

경기불황이 지속됨으로 인하여 실업은 우리 사회의 중요한 이슈 중 하나로 다시 대두되기 시작하였고, 청년 실업은 현 시대가 맞이해야 할 사회적인 문제로서 해결해야 할 절대적 과제가 되어가고 있는 실정이었다. 청년 시기는 전 생애 관점에서 교육과 훈련에서 직업세계로 이행하는 첫 시기이다. 또한 이 시기의 직업과 직장의 선택은 향후 성장과정 전반에 걸쳐 큰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청년은 이 나라를 이끌어갈 미래의 일꾼으로서 인력양성의 주요한 대상이라고 할 수 있다. 하지만 새로운 생존 시대의 서막을 접하고 있는 비대면 시대에서 청년들의 노동시장으로 이행은 그리 쉽지 않을 것이며 더욱이 괜찮은 일자리(decent job)로의 진입은 더욱 어려운 현실일 것이다.

청년실업의 원인에 대하여는 저성장에 따른 경제의 일자리창출 능력 저하와 양질의 일자리 부족, 기업의 경력직 선호, 고학력화 등 다양한 원인이 제기되고 있다. 청년 실업이 심각해지면서 정부는 청년실업을 하락을 위해 다양한 고용정책을 추진하고 있으나 청년들이 학업-취업-결혼의 생애주기 전 과정에서 직면하는 어려움은 여전히 뿐만 아니라 당분간은 지속될 것이다.

한편 정부가 다양한 정책을 시행하고 있음에도 청년구직자들이 체감하지 못하는 이유 중 하나는 정부의 정책들이 주로 고용을 촉진하는 수단으로 개인보다는 기업지원을 통해 혜택을 주는 것에서도 찾을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이러한 정책들은 청년 개개인의 니즈가 다르고, 정규직 그리고 대기업이나 공공부문 등을 선호하여 취업준비가 장기화되어가는 청년층에게는 다음 단계로의 이행에 도움이 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또한 정부의 청년 정책은 구직자에게 상담, 교육, 알선 등 통합적인 서비스를 지원하고자 하는 좋은 취지에도 불구하고 청년층의 특성과 욕구를 반영하는데 한계가 나타나고 있으며 실적 위주의 운영 및 서비스 제공으로 인하여 질적인 서비스 제공 등에서 지속적으로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청년들을 위한 국가정책 중에서 고용복지개념은 바로 구직안전망이라 할 수 있다. 구직안전망은 교육에서 일자

리로 이행하는 과정에 있는 청년들에게 상담에서 알선까지 단계별 공공서비스를 제공하는 한편 구직활동을 하는 동안 실질적인 소득을 보전하고 생활안정을 보장하기 위해 현금 수당을 지급하는 것을 기본내용으로 하고 있다. 이를 통해 구직기간의 장기화를 완화하고 더 나아가 이행 과정의 위기가 생애 전반의 위기로 확대되는 것을 예방하는 것은 물론 실질적인 생활안정을 보장함으로써 공정한 기회 제공을 실현하는데 있다[1]. 즉, 학교 교육 단계에서부터 중도 탈락이나 니트(NEET)족이 될 위험성이 있는 학생들을 대상으로 학교에서 노동시장으로의 이행을 제대로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다[2].

이러한 가운데 국가정책의 틈새에서 새로운 구직안전망으로써 시도되고 있는 전라남도 청년 구직활동수당 지원사업은 시의적절하며 청년들에게 필요한 정책이라 할 수 있다. 청년 구직활동수당 지원사업은 경제적·심리적 어려움 겪고 있는 청년들이 구직활동을 하는 동안 생활의 안정을 확보하고 이를 통해 자기 역량에 대해 이해하여 직업세계로 이행을 돕고 있는 제도이다[3].

하지만, 코로나 19(COVID-19) 팬데믹 상황으로 인한 비대면 시대의 도래로 인하여 청년실업 정책의 패러다임 전환이 요구되고 있는 시점에서 구직활동에 요구되는 상담, 교육, 알선 등 통합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기 어려운 환경을 접하게 되었다. 이와 같은 환경에서 잠재성을 가지고 있는 사물인터넷(IoT)을 활용한 상담, 교육, 알선 등 서비스 제공은 청년 구직활동수당 지원사업에서 구직자들과 접촉할 수 있는 가능성을 열게 될 것이다[4-7].

팬데믹 상황에서 가능성을 인정받고 있는 에듀테크(EduTech) 산업과 기술을 기반으로 한 사물인터넷(IoT)을 활용하여 청년 구직활동의 질적 서비스를 제고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접근이 필요하게 되었다.

본 논문은 전라남도 청년 구직활동수당 지원사업의 참여자들 중에서 지원 기간 이전에 취업을 경험한 대상자의 취업 횟수와 취업을 경험하지 못한 대상자의 실업 기간에 따른 지원 효과에 대한 차이를 검증하고자 하는 것이다. 또한 수당 사용 방법, 도움 분야, 하루 평균 투자시간, 월평균 지출 비용, 구직활동의 어려운 점, 요구되는 프로그램의 청년 구직활동의 차이를 파악하여 사물인터넷(IoT)을 활용한 제도의 발전 방안을 모색함으로써 효과적인 정책 마련의 계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이다.

2. 청년 구직활동수당 지원정책 개요

2.1 고용노동부 청년 구직활동 지원금 추진 배경

우리나라 청년 노동시장은 선진국과 다른 특징을 가지고 있고, 고학력 청년 비중이 OECD 최고 수준이며, 취업 준비에 상당한 시간과 비용이 소요하고 있다. 취업준비생의 경우 첫 취업 소요기간은 2015년 9.4개월에서 2018년 10.7개월로 상승하고 있는 실정이고, 학교 졸업(중퇴 포함) 후 첫 취업까지 소요되는 기간은 2004년 이후 평균 10~12개월을 변동하고 있다. 이러한 결과는 EU 15개국의 평균 1.8년과 비교하여 우리나라가 짧은 편이다[8].

취업을 준비하고 직장을 탐색하는 기간 동안 적절한 지원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본인의 적성 및 전공에 맞는 일자리를 찾는 것이 더욱 어려워지고, 저임금 일자리에 전전하거나 구직기간이 더욱 길어질 우려가 있다. 이러한 우려에 대비하고자 고학력자 비중이 높고 공채시험 준비 등 다양한 취업준비활동을 하는 과정에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우리나라 청년들의 특성을 고려해 자기주도적 구직활동을 전제로 한 취업준비 비용 지원을 추진하게 되었다.

2.2 청년 구직활동 지원금과 고용안전망 연계

일정한 근로경력이 있는 청년들은 일반적인 고용안전망의 보호를 받을 수 있다. 고용보험에 가입한 청년들은 고용보험의 실업급여를 받으며,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엔 2020년 도입될 한국형 실업부조의 취업촉진수당을 받게 될 것이다. 청년 구직활동 지원금은 노동시장 이행 초기의 근로경력이 없거나 짧은 청년들을 대상으로 취업 취약성이 큰 경우가 아니면 자기주도적인 구직활동을 지원하는 것이다[8].

소득을 지원하는 정책적 개입 시점은 졸업(중퇴 포함) 6개월 후이고, 청년 구직활동 지원금은 졸업(중퇴 포함) 후 6개월 내에 취업하지 못한 청년들을 대상으로 학교에서 노동시장으로 이행을 지원하는 수당으로 도입되었다. 청년 구직활동 지원금 수급 이후 일정한 근로경력이 축적되면 실업 위험은 고용보험 실업급여와 한국형 실업부조로 보호하게 될 것이다[8].

졸업(중퇴 포함) 이후에 오래지 않은 청년은 훈련, 취업알선 등 자신에게 필요한 프로그램을 선택할 수 있다. 청년 구직활동 지원금은 학교에서 노동시장으로 이행이 원활하지 않은 청년들의 다양한 자기주도적 구직활동을 지원하는 것이다. 자기주도적인 구직활동에도 불구하고 취업에 실패하면, 취업성공패키지처럼 사례관리에 기초한 통합적인 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하고, 저소득 가구에 속한 경우엔 한국형 실업부조를 통하여 활성화 조치를

제공하게 된다[8].

2.3 전라남도 청년 구직활동수당 지원제도

전라남도 청년 구직활동수당 지원제도는 청년들의 구직활동에 필요한 경비의 포괄적 지원으로 생활안정과 취업역량을 강화하는 것이다. 상담 등 취·창업 관련 서비스를 병행 제공하고, 매월 구직활동보고서를 제출·확인함으로써 지원 내실화를 위하여 적극적으로 사후관리를 하고 있다.

전라남도 청년 구직활동수당은 월 50만원을 6개월 동안 1인당 최대 300만원을 지원하고 있으며, 지원금 수급 중 취업하여, 3개월간 근무 시 50만원을 취업 성공금으로 지원하고 있다. 또한 수요조사에 따라 심리상담, 컨설팅, 취·창업 특강 등 취업 역량 강화 프로그램을 별도로 확으로 수립하여 병행 지원하고 있다.

지원방법은 1개월에 체크카드를 발급하여 구직활동계획서에 의거하여 수당을 지급한다. 1개월 이후에는 취업을 위한 구직·창업 등 활동내용, 계획서 대비 달성정도 등의 매월 구직활동보고서 및 취업 여부를 확인한 후에 지급한다.

지원항목은 직접비로 학원 수강료, 교재 및 도서구입비, 시험응시료, 면접활동비 등을 지원하고, 간접비로 구직활동에 따른 식비, 교통비, 숙박비를 지원한다.

사례관리를 위하여 수행기관 내 전담 매니저 5명을 운영하여 상담, 구직활동보고서, 지원금 사용내역 확인 등 개별 구직활동을 상시 관리하고 각종 청년 취업지원 정책 및 취업 프로그램을 연계하고 있으며 참여자 만족도 조사 및 성과 분석을 실시하고 있다.

3. 연구 방법

3.1 연구 대상 및 자료 수집

본 연구는 2020년 2월 19일부터 3월 9일까지 전라남도 청년 구직활동수당 지원사업에 참여한 대상자 849명을 대상으로 전화로 조사 참여를 요청하였고 참여에 승낙한 참여자를 대상으로 조사를 진행하였다. 설문조사는 연구대상자가 요구하는 조사방법에 따라 개별 전화, 휴대전화, 문자, 이메일 조사를 실시하였다. 연구대상자의 표본오차를 줄이기 위하여 회수된 설문에 대하여 응답 논리체크 등을 시행하였고 재확인 필요한 문항은 전화를 통한 검증을 시행하여 데이터의 신뢰도를 제고하였다.

전화가 연결되지 않거나 전화응답을 거절한 참여자의 응답률을 높이기 위하여 지속적으로 문자와 이메일을 통하여 독려한 결과 참여자 849명 중에서 602명(70.9%)이 설문조사에 참여하였다. 취업을 경험한 대상자는 405명이고, 취업을 경험하지 못한 대상자는 197명이다.

연구대상자의 특성은 <Table 1>과 같다.

<Table 1> Characteristics of Research Subjects

Category(N=602)		person(%)
Gender	male	194 (32.2)
	female	408 (67.8)
Age	under 25	137 (22.8)
	26 to 30 years old	327 (54.3)
	31 to 35 years old	138 (23.0)
Academic Ability	High School Graduate	98 (16.3)
	College Graduate	100 (16.6)
	University Graduate	378 (62.8)
	Graduate School	11 (1.8)
	etc.	15 (2.5)

3.2 조사 도구

전라남도 청년 구직활동수당 지원사업의 만족도 및 효과성을 검증하기 위하여 김지영과 추주희의 선행연구에서 사용한 설문지를 사용하였다[9].

만족도는 신청 및 운영의 절차, 담당기관 프로그램, 수령금액 및 기간 적절성으로 구성하였고, 효과성은 경제적 부담 경감 및 취업준비 집중, 심리적 안정감으로 구성하였다. 만족도와 효과성에 대한 취업자와 미취업자의 인식을 검증하기 위하여 리커트 5점 척도를 이용하여 매우 그렇지 않다 1점부터 매우 그렇다 5점까지의 척도로 구성하였다.

사물인터넷(IoT)의 활용 방안을 제시하기 위하여 수당의 사용 방법, 도움 분야, 하루 평균 투자시간, 월평균 지출 비용, 구직활동 어려움, 요구 프로그램의 청년 구직활동에 대한 인식을 조사하여 취업자와 미취업자의 차이를 검증하였다.

3.3 연구 가설

본 연구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가설을 설정하여 연구를 실시하고, 이에 대한 결과를 중심으로 청년 구직활동수당의 정책적 효과를 제고하기 위한 사물인터넷(IoT)의 활용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 가설 1. 청년 구직활동수당 지원사업의 만족도와 효과성은 취업경험 횟수에 따라 차이가 있을 것이다.
- 가설 2. 청년 구직활동수당 지원사업의 만족도와 효과성은 미취업자의 실업기간에 따라 차이가 있을 것이다.
- 가설 3. 수당의 사용 방법, 도움이 된 분야, 하루 평균 투자시간, 월평균 지출 비용, 구직활동의 어려운 점, 요구되는 프로그램과 같은 청년 구직활동에 대하여 인식하는 차이가 있을 것이다.

3.4 분석 방법

본 연구 가설의 규명을 위하여 수집된 자료는 IBM사의 SPSS 21.0 프로그램을 활용하여 자료를 처리하였다.

첫째, 연구대상자의 특성 분석을 위하여 빈도분석을 실시하였다.

둘째, 만족도와 효과성의 항목별 독립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탐색적 요인분석을 실시하였고 신뢰도를 분석하기 위하여 Chronbach's Alpha 계수값을 이용하였다.

셋째, 청년 구직활동수당 지원사업의 만족도와 효과성의 차이 규명을 위하여 일원배치분산분석을 실시하였다.

넷째, 수당의 사용 방법, 도움이 된 분야, 하루 평균 투자시간, 월평균 지출 비용, 구직활동 어려움, 요구되는 프로그램의 차이 규명을 위하여 빈도분석을 실시하였다.

모든 통계값은 평균값으로 제시하였고 유의수준은 95% 미만으로 하였다.

4. 분석 결과

4.1 요인분석 및 신뢰도분석 결과

4.1.1 만족도의 요인분석 및 신뢰도분석 결과

만족도의 탐색적 요인분석을 실시한 결과는 <Table 2>와 같이 신청 및 운영 절차, 담당기관 프로그램, 금액 및 기간 적절성 3가지 항목으로 분류되었다.

만족도의 신뢰도 분석 결과는 Chronbach's Alpha 계수값이 .921로 <Table 2>와 같이 제시하였고, 교차 부하량으로 인하여 삭제를 권고하는 문항이 Chronbach's Alpha 계수값 보다 낮게 제시되어 신뢰도가 확보되었다.

〈Table 2〉 Factor Analysis and Reliability Analysis Results of Satisfaction

Category		1	2	3	Alpha if Item Delete	Cronbach's Alpha
1	a1	.846			.910	.921
	a2	.759			.911	
	a3	.795			.908	
	a4	.752			.907	
	a5	.795			.909	
2	a6	.439	.767		.909	
	a7		.883		.920	
	a8		.782		.916	
3	a9			.868	.916	
	a10			.893	.919	
Eigenvalue		3.617	2.433	1.955	KMO=.898	
Dispersion(%)		36.170	24.332	19.551		

1=Application and operation procedure
2=Agency Program
3=Adequacy of amount and period

4.1.2 효과성의 요인분석 및 신뢰도분석 결과

효과성의 탐색적 요인분석을 실시한 결과는 〈Table 3〉과 같이 경제적 부담 경감 및 취업준비 집중, 심리적 안정감 2가지 항목으로 분류되었다.

효과성의 신뢰도 분석 결과는 Chronbach's Alpha 계수값이 .917로 〈Table 3〉과 같이 신뢰도가 확보되었다.

〈Table 3〉 Factor Analysis and Reliability Analysis Results of Effectiveness

Category		1	2	Alpha if Item Delete	Cronbach's Alpha
1	b1	.761		.907	.917
	b2	.795		.905	
	b3	.825		.904	
	b4	.865		.910	
	b5	.659		.908	
	b6	.406		.922	
	b7	.704		.910	
2	b8		.773	.902	
	b9		.826	.904	
	b10		.881	.918	
Eigenvalue		4.141	2.945	KMO=.904	
Dispersion(%)		41.409	29.454		

1=Reduction of Economic Burden and Concentration of Job Preparation
2=Psychological Stability

4.2 취업경험자의 취업횟수에 따른 차이분석 결과
4.2.1 취업횟수에 따른 만족도의 차이분석 결과

청년 구직활동수당 지원사업에 참여하기 이전에 취업 경험이 있는 대상자 405명의 취업 횟수에 따른 만족도의 차이를 분석한 결과는 〈Table 4〉와 같이 제시되었다.

〈Table 4〉 Results of Analysis of Differences in Satisfaction According to the Number of Employment

Category(N=405)	N	M	SE	F(p)	
Appropriateness of Application and Operation	1	116	4.21	.082	4.252 (.006)
	2	142	4.11	.069	
	3	73	3.88	.103	
	4 or more	74	3.81	.112	
Fairness of Recruitment and Selection	1	116	4.31	.074	3.806 (.010)
	2	142	4.19	.063	
	3	73	4.07	.079	
	4 or more	74	3.95	.098	
Appropriateness of Payment Form	1	116	4.36	.082	6.428 (.000)
	2	142	4.18	.071	
	3	73	4.04	.094	
	4 or more	74	3.80	.122	
Satisfaction with the Place of Use	1	116	4.43	.081	7.142 (.000)
	2	142	4.23	.069	
	3	73	4.16	.094	
	4 or more	74	3.84	.115	
Appropriateness of the Submission Process	1	116	4.46	.075	8.293 (.000)
	2	142	4.25	.067	
	3	73	4.11	.086	
	4 or more	74	3.86	.111	
Satisfaction with Preliminary Education	1	116	4.17	.089	2.369 (.070)
	2	142	4.10	.069	
	3	73	4.11	.097	
	4 or more	74	3.84	.102	
Satisfaction with Employment Programs	1	116	3.94	.092	.803 (.492)
	2	142	3.88	.081	
	3	73	4.03	.101	
	4 or more	74	3.80	.107	
Participation in Future Programs	1	116	4.33	.077	1.315 (.269)
	2	142	4.14	.072	
	3	73	4.21	.101	
	4 or more	74	4.12	.096	
Appropriateness of the Amount Received	1	116	4.10	.094	3.448 (.017)
	2	142	3.89	.084	
	3	73	3.89	.102	
	4 or more	74	3.62	.131	
Appropriateness of the Receiving Period	1	116	4.09	.090	3.822 (.010)
	2	142	3.94	.083	
	3	73	3.73	.127	
	4 or more	74	3.62	.130	

〈Table 4〉의 결과와 같이 신청 및 운영 절차의 적절성, 모집 및 선발의 공정성, 지급 형태의 적절성, 사용자에 대한 만족도, 제출 절차의 적절성, 수령 금액의 적절성, 수령 기간의 적절성에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예비교육에 대한 만족도, 취업 프로그램에 대한 만족도, 향후 프로그램에 참여도에서는 유의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4.2.2 취업횟수에 따른 효과성의 차이분석 결과

청년 구직활동수당 지원사업에 참여하기 이전에 취업 경험이 있는 대상자 405명의 취업 횟수에 따른 효과성의 차이를 분석한 결과는 <Table 5>와 같이 제시되었다.

<Table 5>의 결과와 같이 취업준비 매진에 도움, 취업 준비 기간의 여유, 생활의 여유와 시간 확보, 아르바이트 중단, 가족의 경제적 부담 경감, 상담할 수 있는 사람과 기관을 만남에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생활비 부담 경감, 식사와 건강에 대한 관심, 하고 싶은 일에 대한 자신감, 자신의 가능성에 대한 믿음에서는 유의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Table 5> Results of Analysis of Differences in Effectiveness According to the Number of Employment

Category(N=405)		N	M	SE	F(p)
Help in Preparing for Employment	1	116	4.66	.059	6.369 (.000)
	2	142	4.44	.055	
	3	73	4.38	.080	
	4 or more	74	4.24	.090	
Relaxation for Job Preparation Period	1	116	4.58	.065	6.585 (.000)
	2	142	4.45	.056	
	3	73	4.32	.089	
	4 or more	74	4.11	.105	
Securing Leisure and Time in Life	1	116	4.56	.065	4.512 (.004)
	2	142	4.39	.062	
	3	73	4.34	.083	
	4 or more	74	4.15	.107	
Reduced Cost of Living	1	116	4.60	.061	1.479 (.220)
	2	142	4.44	.064	
	3	73	4.52	.081	
	4 or more	74	4.43	.075	
Care about Eating and Health	1	116	4.29	.090	.687 (.560)
	2	142	4.20	.071	
	3	73	4.18	.104	
	4 or more	74	4.11	.103	
Part-Time Job Interruption	1	116	3.97	.092	3.951 (.008)
	2	142	3.69	.096	
	3	73	3.60	.136	
	4 or more	74	3.43	.138	
Relieve the Family's Financial Burden	1	116	4.51	.074	4.251 (.006)
	2	142	4.31	.072	
	3	73	4.32	.107	
	4 or more	74	4.04	.118	
Confidence in What You Want to Do	1	116	4.37	.071	2.297 (.077)
	2	142	4.19	.071	
	3	73	4.27	.098	
	4 or more	74	4.07	.095	
Belief in Your Own Possibilities	1	116	4.30	.078	2.051 (.106)
	2	142	4.15	.070	
	3	73	4.15	.093	
	4 or more	74	4.00	.096	
Meeting with a Person You can Consult with	1	116	3.99	.101	5.072 (.002)
	2	142	3.86	.090	
	3	73	3.66	.121	
	4 or more	74	3.41	.128	

4.3 미취업자의 실업기간에 따른 차이분석 결과

4.3.1 실업기간에 따른 만족도의 차이분석 결과

청년 구직활동수당 지원사업에 참여하기 이전까지 취업 경험이 없는 대상자 197명의 실업 기간에 따른 만족도의 차이를 분석한 결과는 <Table 6>과 같이 제시되었다.

<Table 6>의 결과와 같이 신청 및 운영 절차의 적절

<Table 6> Results of Analysis of Differences in Satisfaction According to Unemployment Period

Category(N=197)		N	M	SE	F(p)
Appropriateness of Application and Operation	Less than 1Year	18	4.61	.164	3.460 (.009)
	Less than 2Years	29	4.34	.167	
	Less than 3Years	25	4.04	.147	
	More than 4Years	74	3.96	.089	
Fairness of Recruitment and Selection	Less than 1Year	18	4.72	.135	.181 (.003)
	Less than 2Years	29	4.45	.137	
	Less than 3Years	25	4.29	.094	
	More than 4Years	74	4.11	.085	
Appropriateness of Payment Form	Less than 1Year	18	4.67	.140	3.893 (.005)
	Less than 2Years	29	4.38	.152	
	Less than 3Years	25	4.27	.119	
	More than 4Years	74	4.11	.087	
Satisfaction with the Place of Use	Less than 1Year	18	4.72	.135	3.121 (.016)
	Less than 2Years	29	4.48	.137	
	Less than 3Years	25	4.29	.110	
	More than 4Years	74	4.18	.078	
Appropriateness of the Submission Process	Less than 1Year	18	4.67	.140	2.826 (.026)
	Less than 2Years	29	4.41	.145	
	Less than 3Years	25	4.29	.106	
	More than 4Years	74	4.09	.098	
Satisfaction with Preliminary Education	Less than 1Year	18	4.28	.211	2.094 (.083)
	Less than 2Years	29	4.21	.167	
	Less than 3Years	25	4.12	.118	
	More than 4Years	74	4.09	.084	
Satisfaction with Employment Programs	Less than 1Year	18	3.50	.364	1.338 (.257)
	Less than 2Years	29	3.72	.253	
	Less than 3Years	25	4.00	.115	
	More than 4Years	74	3.97	.092	
Participation in Future Programs	Less than 1Year	18	4.39	.183	1.045 (.385)
	Less than 2Years	29	4.10	.201	
	Less than 3Years	25	3.92	.215	
	More than 4Years	74	4.00	.098	
Appropriateness of the Amount Received	Less than 1Year	18	4.61	.164	4.321 (.002)
	Less than 2Years	29	4.10	.152	
	Less than 3Years	25	4.18	.107	
	More than 4Years	74	3.96	.115	
Appropriateness of the Receiving Period	Less than 1Year	18	4.61	.164	4.339 (.002)
	Less than 2Years	29	3.93	.178	
	Less than 3Years	25	4.10	.109	
	More than 4Years	74	3.84	.112	

성, 모집 및 선발의 공정성, 지급 형태의 적절성, 사용처에 대한 만족도, 제출 절차의 적절성, 수령 금액의 적절성, 수령 기간의 적절성 등 총 7개 항목은 미취업자의 실업 기간에 따라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예비교육에 대한 만족도, 취업 프로그램에 대한 만족도, 향후 프로그램에 참여도에서는 유의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Table 7〉 Results of Analysis of Differences in Effectiveness According to Unemployment Period

Category(N=197)		N	M	SE	F(p)
Help in Preparing for Employment	Less than 1Year	18	4.72	.135	1.640 (.166)
	Less than 2Years	29	4.62	.104	
	Less than 2Years	51	4.59	.080	
	Less than 3Years	25	4.44	.130	
	More than 4Years	74	4.38	.090	
Relaxation for Job Preparation Period	Less than 1Year	18	4.72	.135	3.258 (.013)
	Less than 2Years	29	4.62	.126	
	Less than 2Years	51	4.61	.075	
	Less than 3Years	25	4.40	.115	
	More than 4Years	74	4.24	.103	
Securing Leisure and Time in Life	Less than 1Year	18	4.67	.140	2.467 (.046)
	Less than 2Years	29	4.66	.124	
	Less than 2Years	51	4.57	.085	
	Less than 3Years	25	4.24	.156	
	More than 4Years	74	4.31	.098	
Reduced Cost of Living	Less than 1Year	18	4.67	.140	2.011 (.095)
	Less than 2Years	29	4.69	.112	
	Less than 2Years	51	4.63	.074	
	Less than 3Years	25	4.32	.138	
	More than 4Years	74	4.34	.122	
Care about Eating and Health	Less than 1Year	18	4.61	.143	2.622 (.036)
	Less than 2Years	29	4.55	.127	
	Less than 2Years	51	4.39	.105	
	Less than 3Years	25	3.96	.178	
	More than 4Years	74	4.22	.113	
Part-Time Job Interruption	Less than 1Year	18	4.44	.202	3.734 (.006)
	Less than 2Years	29	4.31	.158	
	Less than 2Years	51	3.82	.153	
	Less than 3Years	25	3.60	.231	
	More than 4Years	74	3.64	.137	
Relieve the Family's Financial Burden	Less than 1Year	18	4.72	.135	1.108 (.354)
	Less than 2Years	29	4.55	.154	
	Less than 2Years	51	4.47	.102	
	Less than 3Years	25	4.28	.178	
	More than 4Years	74	4.36	.101	
Confidence in What You Want to Do	Less than 1Year	18	4.83	.121	2.976 (.021)
	Less than 2Years	29	4.52	.137	
	Less than 2Years	51	4.24	.111	
	Less than 3Years	25	4.16	.180	
	More than 4Years	74	4.24	.094	
Belief in Your Own Possibilities	Less than 1Year	18	4.78	.129	2.763 (.029)
	Less than 2Years	29	4.45	.154	
	Less than 2Years	51	4.16	.110	
	Less than 3Years	25	4.08	.208	
	More than 4Years	74	4.15	.105	
Meeting with a Person You can Consult with	Less than 1Year	18	4.61	.183	5.611 (.000)
	Less than 2Years	29	4.28	.210	
	Less than 2Years	51	3.76	.139	
	Less than 3Years	25	3.36	.199	
	More than 4Years	74	3.72	.122	

4.3.2 실업기간에 따른 효과성의 차이분석 결과

청년 구직활동수당 지원사업에 참여하기 이전까지 취업경험이 없는 대상자 197명의 실업 기간에 따른 효과성의 차이를 분석한 결과는 〈Table 7〉과 같이 제시되었다.

〈Table 7〉의 결과와 같이 취업 준비 기간의 여유, 생활의 여유와 시간 확보, 식사와 건강에 관심, 아르바이트 중단, 하고 싶은 일에 대한 자신감, 자신의 가능성에 대한 믿음, 상담할 수 있는 사람과 기관을 만남 등 총 7개 항목은 실업기간에 따라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취업 준비 매진에 도움, 생활비 부담 경감, 가족의 경제적 부담 경감에서는 유의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4.4 청년 구직활동 인식조사 결과

4.4.1 수당의 사용 방법

구직활동수당 사용방법은 〈Table 8〉과 같이 시험준비를 위한 비용이 267명(44.4%)으로 제일 높게 나타났다. 다음으로 자격증 취득 및 어학능력 향상을 위한 비용이 222명(36.9%)으로 나타났으며, 식비 등 취업 활동에 필요한 생활비 보조 60명(10.0%), 행사참가 및 교육참여 등 자기개발 비용 32명(5.3%), 취업 및 창업 관련 그룹활동 등에 소요되는 비용 12명(2.0%)의 순으로 나타났다.

〈Table 8〉 How to Use the Job Search Allowance

Category(N=602)	person(%)
Cost to prepare for the exam	267(44.4)
Expenses for obtaining licenses and improving language skills	222(36.9)
Expenses for group activities related to employment and start-up	12(2.0)
Costs for photography, test, accommodation and transportation	8(1.3)
Self-development expenses, such as participation in events and education	32(5.3)
Subsidy for living expenses, such as food expenses	60(10.0)
etc.	1(0.2)

4.4.2 수당 지원으로 가장 도움이 된 분야

청년 구직활동수당 지원으로 가장 큰 도움이 된 분야는 〈Table 9〉와 같이 심리적 안정감에서 213명(35.4%)으로 높게 나타났다. 다음으로 부모님께 의존하지 않아도 되는 것에서 141명(23.4%)으로 나타났으며, 구직활동 전념에서 125명(20.8%), 자신감, 적극성 등 상승에서 78명(13.0%), 스펙 보완에서 44명(7.3%) 순으로 나타났다.

〈Table 9〉 Most Helpful Field

Category(N=602)	person(%)
Psychological stability	213(35.4)
Increased confidence, aggressiveness, etc.	78(13.0)
Dedicated to job search	125(20.8)
Specification supplement	44(7.3)
Not having to rely on parents	141(23.4)
etc.	1(0.2)

4.4.3 구직활동을 위한 가장 어려운 점

수당을 지원받은 이후에 구직활동을 위한 가장 어려운 점으로는 〈Table 10〉과 같이 학원등록 및 시험응시 등의 취업준비에 대한 자금 및 시간적 여유 부족에서 315명(52.3%)으로 높게 나타났다. 다음으로 직무 관련 자격증 부족에서 123명(20.4%)으로 나타났으며, 취업(창업) 정보가 부족해서 잘 모름에서 66명(11.0%), 입사준비서류(이력서, 자기소개서) 작성방법을 잘 모름에서 47명(7.8%)의 순으로 나타났다.

〈Table 10〉 Difficulties for Job Search

Category(N=602)	person(%)
Lack of money and time for job preparation	315(52.3)
Lack of job-related qualifications	123(20.4)
Insufficient or unsure of employment (start-up) information	66(11.0)
Not sure how to fill out the job preparation documents	47(7.8)
Lack of startup funds	35(5.8)
etc.	16(2.7)

4.4.4 요구되는 취업역량 강화 프로그램

청년의 구직활동을 위해 요구되는 취업역량 강화 프로그램은 〈Table 11〉과 같이 직무분석교육(직무분석방법, 자기소개서, 이력서작성 등)에서 154명(25.6%)으로 높게 나타났다. 다음으로 심리상담(준비과정에서 느끼는 심리적 어려움 상담)에서 111명(18.4%)으로 나타났으며, 취업특강(취업동향 및 전략, 스피치 요령 등)에서 107명(17.8%), 현 직장 근무자의 질의응답을 통한 정보전달 및 공유에서 106명(17.6%)의 순으로 나타났다.

〈Table 11〉 Required Employment Program

Category(N=602)	person(%)
Job analysis training (job analysis, self-introduction, resume writing, etc.)	154(25.6)
Information delivery and sharing through question and answer from current workers	106(17.6)
Psychological counseling (counseling with difficulties experienced during preparation)	111(18.4)
Special lecture on employment (employment trend and strategy, speech)	107(17.8)
Special lecture on interview preparation (mock interview, etc.)	88(14.6)
etc.(Make-up and photography, etc.)	36(6.0)

4.4.5 하루 평균 구직활동 투자시간

청년 구직활동수당을 지원 받은 이후 구직을 위한 하루 평균 투자시간은 〈Table 12〉와 같이 7시간 이상이 209명(34.7%)으로 제일 높게 나타났다. 다음으로 5시간 이상 6시간 미만으로 89명(14.8%)으로 나타났으며, 3시간 이상 4시간 미만인 85명(14.1%), 4시간 이상 5시간 미만이 82명(13.6%), 2시간 이상 3시간 미만이 50명(8.3%)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Table 12〉 Average Investment Time Per Day

Category(N=602)	person(%)
Less than 1 hour	6(1.0)
1 hour or more and less than 2 hours	35(5.8)
2 hours or more and less than 3 hours	50(8.3)
3 hours or more and less than 4 hours	85(14.1)
4 hours or more and less than 5 hours	82(13.6)
5 hours or more and less than 6 hours	89(14.8)
6 hours or more and less than 7 hours	46(7.6)
More than 7 hours	209(34.7)

4.4.6 구직활동 위한 월 평균 지출 비용

청년 구직활동수당을 지원 받은 이후에 구직을 위한 월 평균 사용 비용은 〈Table 13〉과 같이 48.79만원으로 나타났다.

〈Table 13〉 Average Monthly Expenses

Category(N=602)	M
Average monthly cost to find a job after receiving allowance	48.79

5. 결론 및 제언

본 연구의 결론은 다음과 같다.

첫째, 취업 횟수에 따른 만족도와 효과성은 항목에 따라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취업 횟수에 따른 만족도와 효과성은 항목에 따라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전남 청년 구직활동수당은 다양한 구직활동을 위해 미래의 불확실성을 일정부분 해소해주고 있고, 노동시장으로의 진입을 이행하는 시점에서 구직활동을 위한 취업준비 매진, 시간의 여유, 생활비 부담 감소, 식사와 건강에 관심, 가족의 경제적 부담 감소, 자신감 향상, 가능성에 대한 믿음 등 긍정적 효과를 나타내고 있다.

셋째, 구직활동수당 사용방법으로는 ① 시험준비를 위한 비용, ② 식비, 교통비 등 취업(창업)에 필요한 비용으로 나타나고 있고, 청년 구직활동수당을 지원받은 이후에 구직활동을 위한 월 평균 소요시간은 7시간 이상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이유로 취업을 향상을 위한 자격증 과정과 어학능력 향상 프로그램을 준비하여 지속적으로 구직자의 구직활동 비용이 절감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라 사료된다.

넷째, 청년 구직활동수당을 지원 받은 이후에 가장 큰 도움을 받은 것은 ① 심리적 안정감, ② 부모님께 의존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나 장기적인 청년 니트를 겪고 있는 전남 청년의 애로사항을 주관기관에서 일정부분 해소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청년의 장기근속 등을 유도하기 위해 다양한 근속장려금 등의 지원사업이 존재하고 중소기업 등에 취업한 청년들의 근속에 상당한 동기부여가 되고 있다. 근속을 위한 가장 현실적이고 시간과 비용 부담이 적은 것은 기업의 복지를 향상시키는 일이며 올바른 기업 문화가 정착할 수 있도록 지역사회가 함께 노력을 해야 할 것이다.

다섯째, 취업 경험자의 취업 횟수가 평균 2번으로 나타나고 있고, 취업 미경험자의 실업 기간은 4년 이상으로 나타나고 있어 장기적인 청년 니트(NEET)가 발생하고 있다. 근로경력이 없거나 짧아서 실업급여를 수급하기 어려운 청년계층을 장기적인 청년 니트(NEET)로 이어지지 않게 하기 위한 노동시장의 현실도 고려해야 하지만, 비대면 시대에 청년의 요구사항을 파악하여 노동시장으로의 이동을 위한 다양한 접근으로 합리적인 지원이 될 수 있는 청년 육구의 실태 파악이 중요할 것이다.

사물인터넷(IoT)을 활용하여 청년구직활동의 질적 서

비스를 제고할 수 있는 제언은 다음과 같다.

첫째, 청년들이 자기의 적성에 맞는 일자리를 찾을 수 있도록 다양한 역량 프로그램 등을 지원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웨어러블 장치 활용, 유튜브 채널과 같은 온라인 교육 활성화 등 사물인터넷을 활용한 증강현실, 가상현실, 플립러닝 프로그램 등을 실재감 있게 강화하여 다양한 정보 학습 능력 향상과 취업 서비스 정보 제공을 위한 시스템 구축을 고려해야 할 것이다[10-12].

둘째, 청년 구직활동수당 지원사업이 일반적인 구직활동 이외에 인터넷, 스마트폰 등을 활용한 과제중심학습으로 교육효과를 극대화하고 사물인터넷 환경에서 제공 받을 수 있는 환경이 구축되어야 할 것이다[4, 13-16]. 청년의 자기주도적 구직 노력이 시간과 공간의 한계를 극복하고 지속적으로 제공될 수 있는 취업역량 강화프로그램과 연계하여 함께 지원될 수 있는 사물인터넷 환경 구축에도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셋째, 청년 구직활동수당 지원사업이 졸업 후 2년 이내의 미취업 청년에 대한 수당제도로써 설계되어 있어, 일정부분은 청년의 취업을 위한 자금 부족 및 시간 부족을 해결해 주고 있다는 것을 본 연구를 통하여 알 수 있다. 하지만, 구직을 위해 요구되는 취업역량 강화프로그램은 지속적으로 개선이 요구되는 사항이므로 청년 구직활동수당 지원사업의 효과를 제고하기 위해서는 비대면 시대에 과학기술의 발전에 따라 생겨난 새로운 전달매체인 뉴미디어의 활용도 요구된다[17]. 또한 사물인터넷 환경에서 다양한 정보를 공유할 수 있는 에듀테크 산업과 기술이 함께 개선되어야 할 것이다.

REFERENCES

- [1] J.Y.Jeong, "Life Safety Net for Young Adults," Monthly Welfare Trend, No.207, pp.15-21, 2016.
- [2] H.J.Yim, Y.J.Kim, H.G.Kim and J.E.Hyun, Gyeonggi-do Youth Job Subsidy Effectiveness Study, Gyeonggi-do Job Foundation, 2017.
- [3] Y.E.We, "Association of Outplacement Convergence Education and Transformative Learning," Journal of The Korea Internet of Things Society, Vol.3, No.2, pp.15-20, 2017.
- [4] K.H.Lee, "Design of Learning Model using Triz for PBL(Project-based Learning) in IoT Environment," Journal of The Korea Internet of Things Society, Vol.5, No.2, pp.81-87, 2019.
- [5] C.McCormack and D.Jones, Building a Web-Based Education System. New York, Wiley Computer

Publishing.

- [6] A.J.Romisowski, "Web-Based Distance Learning and Teaching: Revolutionary Invention or Reaction to Necessity?," In Khan, B. (Ed.), Web-based Instruction, pp.91-111, New Jersey: Educational Technology Publications, 1997.
- [7] D.Moursund, Project-Based Learning Using Information Technology, International Society for Technology in Education, 1999.
- [8] B.H.Lee, H.W.Kim, H.J.Kil and J.J.Kim, A Study on the Reorganization Direction of the Youth Promotion Party, Korea Labor Institute, 2018.
- [9] J.Y.Kim and J.H.Choo, "A Study on the Efficiency and Satisfaction of Youth Income Security Policy in Gwangju Youth Dream Allowance," The Journal of Humanities and Social Science, Vol.10, No.2, pp.1503-1517, 2019.
- [10] K.H.Youn and J.Y.Lee, "The Effect of Social Support on Service Quality of Youth Training Facility Employees in Internet of Thing Environment: The Mediating Effect of Empowerment," Journal of The Korea Internet of Things Society, Vol.6, No.1, pp.31-38, 2020.
- [11] H.S.Shin, "A Study on the Empowerment and Service Quality of the Living Rehabilitation Teachers in Living Facility for the Disabled," Journal of Social Welfare Development, Vol.11, No.4, pp.279-300, 2005.
- [12] H.I.Choi and S.K.Lee, "Mediation Path Between Youth Shelter's Work Environment and Quality of Service," Social Welfare Review, Vol.16, pp.42-65, 2011.
- [13] M.H.Jo, "Investigation on the Project-Based Learning Approach Using the Internet," Journal of the Korean Association of Information Education, Vol.5, No.2, pp.240-257, 2001.
- [14] E.Share and L.Rogers, Get Real! <http://www.gsn.org/weblib/real/getreal.htm>, 1997.
- [15] J.C.Banks, Creating and Assessing Performance-based Curriculum Projects: A Teacher's Guide to Project-Based Learning and Performance Assessment, Edmonds, WA:CATS Publications, 1997.
- [16] G.H.Lim and Y.T.Kim, "A Study of the Project-Based Learning Methods for Reinventing Ideas of Mathematician via the Strategy of Polya's Problem Solving," Brain, Digital, & Learning, Vol.8, No.3, pp.117-135, 2018.
- [17] K.M.Cho, "Utilization of Mobile New Media based on Video Curation", Journal of The Korea Internet of Things Society, Vol.6, No.2, pp.51-56, 2020.

이 상 호(Sangho Lee)

[정회원]



- 2015년 2월 : 목포대학교 금융보협학과 금융전공(경영학박사)
- 2015년 4월 ~ 2018년 3월 : 송원대학교 인재개발원 산학협력중점교수
- 현재 : 목포대학교 스마트비즈니스학과 산학협력중점교수

<관심분야>

사물인터넷, 금융상품, 부동산금융, 국제금융, 금융제도, 서비스마케팅

조 광 문(Kwangmoon Cho)

[종신회원]



- 1995년 8월 : 고려대학교 전산과 학과(이학박사)
- 1995년 9월 ~ 2000년 2월 : 삼성전자 통신연구소 선임연구원
- 2000년 3월 ~ 2005년 2월 : 백석대학교 정보통신학부 교수
- 2005년 3월 ~ 현재 : 목포대학교 전자상거래학과 교수

<관심분야>

사물인터넷, 통신 소프트웨어, 전자상거래, 콘텐츠 유통, 모바일 콘텐츠, 웹 서비스